

타자 변신 김일엽 3타점 '8강 해결사'

(경북고·대구중학교 코치)

2014 야구대제전 16강전

롯데 투수시절 타자 전향 권유받은 거포 지명타자 출전 2안타...경북고 8강 견인

이중범의 아들 고1 이정후 1안타 1득점 휘문고, 3-0 개성고 제압하고 8강 합류

누구나 한번쯤 친구들과 해맑게 어울렸던 학창시절을 꼽는다. 그러나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에 옷장 속에 고이 간직한 교복을 다시 입을 수 없다. 야구대제전(대한야구협회·스포츠동아 공동주최)에서 프로 선수들은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추억을 그리웠던 유니폼과 함께 만난다. TV 속에서만 봤던 선배들과 함께 그라운드에서 뛰는 고교 재학생들에게는 더 큰 꿈을 갖게 되는 소중한 기회다. 은퇴한 추억의 이름, 현역 선수, 재학생들이 함께 만드는 뜨거운 승부. 2014 야구대제전의 8강 진출팀이 10일 마산구장에서 결정됐다.

●로이스터 인정된 '거포' 김일엽의 화려한 귀환

2008년 롯데는 올림픽 휴식 기간에 자체 청백전을 치르며 컨디션을 조절했다. 제리 로이스터 감독은 김일엽을 투수가 아닌 타자로 출장시켰다. 큼지막한 타구를 평평 날리고 안타도 2개나 때리는 모습을 보고 당시 김무관 타격코치는 "타자로 변신하자. 홈런 20개는 칠 수 있다"고 진지하게 권유했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도전을 접고 한국프로야구에서 투수로 성공을 꿈꾸던 김일엽은 정중히 사양했다. 이뤄지지 않은 타자 변신은 6년이 지난 2014년 야구대제전에서 폭발했다.

경북고는 4타수 2안타 3타점으로 공격을 이끈 김일엽의 활약 속에 성남고에 9-1, 6회 콜드게임 승리를 거뒀다. 지난해 준우승을 거둔 성남고는 경북고 타선을 막지 못하며 16강에서 탈락했다. 2013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김일엽(35)은 대구규정상 투수로도 출장할 수 있지만(현역 프로 투수만 투수 출전 금지), 8번 지명타자로 타석에 섰다. 대거 5점을 올린 3회 1타점 적시타를 때리는 등 이날 홈런 3타점을 올렸다.

은퇴 후 대구중학교에서 코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일엽은 경기 후 '타자

로 다시 현역으로 돌아가고 되겠다'는 말에 웃으며 "운이 좋았다. 예전부터 배팅을 좋아했지만 절대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니다. 후배들과 함께 뛰면서 경기도 이겨 굉장히 기쁘다"고 말했다.

kt 박세웅의 동생인 경북고 2학년 좌완 박세진(17)은 선발투수로 등판해 4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잡으며 맹활약했다. 박세웅(19)은 "동생이 잘 던져서 뿌듯하다"며 기뻐했다. 성남고 백민기(24·롯데)는 5회 솔로홈런을 날리며 모교의 영패를 막았다.

●'바람의 손자' 고교 1학년의 당당한 활약

휘문고는 개성고에 3-0으로 이겨 8강에 올랐다. 이중범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의 아들인 이정후(16)는 휘문고 1학년이지만 1번 3루수로 선발출장해 깔끔한 수비와 3타수 1안타 1득점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프로선수와 함께 뛰 경기였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두산과 한화에서 활약하다 2012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정영석(37)은 모처럼 배트를 잡고 3타수 1안타에 도루까지 성공했다. 개성고는 강병철 전 롯데 감독 등 야구원로 동문들이 덕아웃에서 열띤 응원을 펼치고 윤완주(25·KIA), 박동원(24·넥센) 등 프로 선수들이 힘을 냈지만 휘문고 재학생 투수들을 공략하지 못해 영패를 당했다.

대회가 열리는 마산 지역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받은 마산용마고는 전주고에 4-2로 승리하며 8강에 합류했다. 한편 8강전은 11일 낮 12시부터 마산구장에서 동산고-군산상고 경기로 시작된다.

마산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kh

●16강전 경기결과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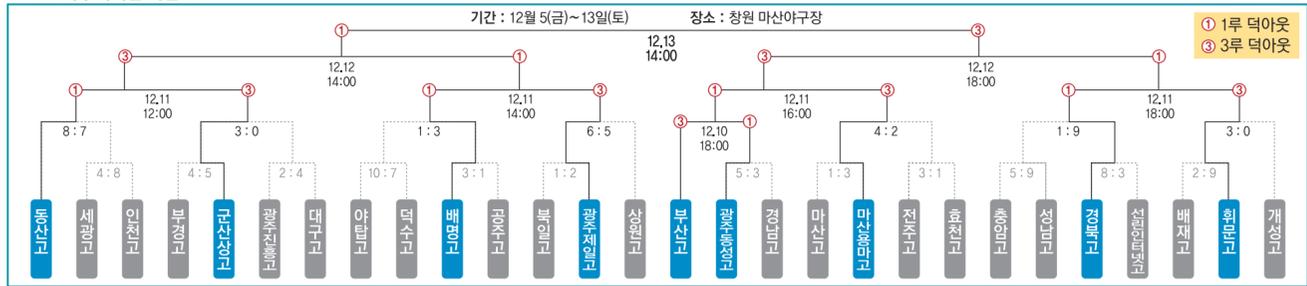
구장	팀	1	2	3	4	5	6	7	R
마산	개성고	0	0	0	0	0	0	0	0
	휘문고	0	1	1	1	0	0	X	3
[홈] 김대환 [투수] 정수봉 [피칭] 없음									
구장	팀	1	2	3	4	5	6	7	R
마산	경북고	0	0	5	0	0	4	X	9
	성남고	0	0	0	0	1	0	X	1
[홈] 나태환 [투수] 김주철 [피칭] 백민기 (6회 콜드)									
구장	팀	1	2	3	4	5	6	7	R
마산	전주고	0	0	0	1	1	0	0	2
	마원고	0	0	0	0	0	4	X	4
[홈] 이정현 [투수] 박민정 [피칭] 윤형국									



경북고 김일엽이 10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2014야구대제전 성남고와의 16강전에서 3회초 1사 만루서 적시타를 때려낸 뒤 1루로 향하고 있다. 마산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 @bluemaerine007

스포츠토토

●2014 야구대제전 대진표



김상수 "고교시절 못한 우승 하고 싶어요"

프로 데뷔후 삼성서 6시즌 동안 4번 정상 야구대제전 경북고 유니폼 입고 새로운 꿈

삼성 김상수(24)는 2009년 프로에 데뷔했다. 프로에서 뛰 6시즌 동안 팀은 무려 4차례나 한국시리즈 정상에 올랐다. 말 그대로 우승을 밥 먹듯 해왔다. 그러나 그의 고교시절 우승 횟수는 '0'이다.

청소년대표로 활약하는 등 화려한 고교시절을 보냈고, 명문 경북고 출신이기 때문에 그는 "고등학교 때는 우승을 몇 번이나 했나?"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한 번도 못했다"는 답을 하면 대부분 "사실이나?"며 고개를 갸웃한다. "사실 경북고는 최근 20여 년 동안 우승을 못했다"고 덧붙이면 좀처럼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 돌아온다.

10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2014야구대제전(대한야구협회·스포츠동아 공동주최) 성남고와 16강전을 치르기 위해 일찌감치 야구장에

도착한 김상수는 "6년 만에 경북고 유니폼을 입어본다"고 웃으며 "한국시리즈 끝나고 푹 쉬었다. 오늘은 2루수로 나간다. 3번타자인데 큰일이다. 잘 쳐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고등학교 때 지역대회는 1위를 해봤지만 전국대회 우승은 없었다. 다들 경북고가 최근에도 우승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대선팀들이 워낙 대단한 기록을 세워 그 기억이 지금까지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경북고의 마지막 우승은 이승엽 선배가 2학년이었던 1993년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북고는 이승엽(삼성)이 2학년, 강동우(두산 코치)가 3학년이었던 1993년 청룡기에서 우승한 후 전국대회 정상에 서지 못했다.

대한야구협회 집계결과 경북고는 역대 최다 전국대회 우승(30회) 기록을 갖고 있다(2위 부산고 27회). 그러나 대부분의 우승은 전설의 투수 임신근 남우식 등이 활약한 1970년대와 류종일 삼성 감독이 재학생이었

던 1980년대 초반에 달성한 것이었다.

김상수는 "고교시절엔 우승을 못했지만 경북고 유니폼을 입고 선배들과 야구대제전에서 꼭 정상에 서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때 결에서 "좋겠다. 고교 유니폼도 다시 입고"라는 말이 들렸다. 이달 말 삼부 입대를 앞둔 김상수의 절친한 친구 권희동(24·NC)이었다. "군대 가는데, 한참 놀아야 야구장에는 왜 왔나?"는 김상수의 말에 권희동은 "구경하러 왔지. 우리는 선수가 없어서 참가 못했다.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권희동이 졸업한 경북고는 2008년 해체됐다. 경북고의 졸업생은 2008년 해체됐다. 경북고의 졸업생은 2008년 해체됐다. 경북고의 졸업생은 2008년 해체됐다.

경북고는 김상수의 바람대로 성남고에 9-1로 대승을 거두며 8강에 진출했다. 안타는 치지 못했지만 국가대표에 어울리는 완벽한 수비와 재치 있는 주루로 승리에 힘을 보탤다. 마산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kh



삼성 김상수가 모교인 경북고 유니폼을 입고 10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2014 야구대제전 성남고전에 출전해 4회 볼넷을 얻어낸 뒤 투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김상수는 "야구대제전 우승으로 고교 시절 못 이룬 우승 한을 풀겠다"고 다짐했다. 마산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 @bluemaerine007



두산 홍성흔이 10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된 두산 선수단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 참여해 연탄을 나르고 있다. 사진제공 | 두산 베어스

김광현 '사랑의 골든글러브'

심장병·백혈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 등 꾸준한 선행 박용택·손승락 기부활동...구단 봉사활동도 활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999년부터 '사랑의 골든글러브'를 시상하고 있다. 각 구단의 추천을 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1999년 박정태(롯데)와 진필중(두산)이 받은 이래 2002~2003년만 제외하고 2014년 김광현(SK)까지 이어졌다. 그 면면을 보면(표 참조) 고액연봉 스타선수들이 돈만 밝히지 않고,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예(Noblesse)만큼 의무(Oblige)를 다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역대 사랑의 골든글러브 수상자

연도	수상자
1999	박정태(롯데) 진필중(두산)
2000	이승엽(삼성)
2001	이병규(LG)
2004	정민태(현대) 송진우(한화)
2005	조용현(SK) 롯데 선수단
2006	이진영(SK) 손민환(롯데)
2007	박용택(LG)
2008	한화 선수단
2009	이대호(롯데)
2010	봉중근(LG)
2011	박용택(LG)
2012	김태균(한화)
2013	조성환(롯데)
2014	김광현(SK)

●프로의 품격 증명한 선수들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와 계약을 앞두고 있는 SK 김광현(26)은 꾸준히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들의 수술비를 도왔다. 지난 9월에는 백혈병과 투병하는 어린이의 시구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문학구장에 초청해 포수로 나서기도 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는 1000만원을 기부했다.

LG 박용택(35)은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사랑의 골든글러브를 받았다. 박용택은 2011년 수상 당시, "같이 연탄배달 합시다"라는 소감으로 팬들과 함께 하는 봉사를 제안했는데 그 바람은 기적처럼 이뤄져 지금까지 박용택과 팬들은 함께 사랑의 연탄배달을 하고 있다.

선수들은 개인성에 따른 성금 적립 방식을 많이 따르는데 넥센 손승락은 통산 150세이프를 기념해 서초구에 불우이웃돕기 쌀 150kg을 기부했다. LG는 구단 차원에서 이병규(9번), 박용택, 오지환의 안타, 류제국의 승리, 봉중근의 세이프, 정현욱의 홈런 등에 따른 성금을 모아 어린이재단, 서울대병원 등에 기부했다. 삼성 이승엽과 박석민 등도 지인들과 '청나라'라는 모임을 만들어 홈런과 타점 등의 기록과 연계해 적립금을 소외계층에 전달하고 있다. 재능 기부도 새로운 봉사 트렌드인데 두산 김현수와 유희관은 모교인 방배초등학교 후배들에게 야구를 가르쳐주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 김현수는 2009년부터 듣지 못하는 중추성심학교 야구부를 위한 재능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그룹홍보를 넘어 사회공헌의 얼굴이 되는 야구단

2008년 사랑의 골든글러브를 단채 수상한 한화 선수단은 사랑의 연탄 나르기처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봉사활동을 해마다 하고 있다. 넥센도 홈구장이 위치한 양천구 사랑복지재단에 1400만원 상당의 식품세트를 기부했다. 두산은 구단 차원에서 연탄배달을 하고 있고, 중앙대학교 병원을 찾아 산타베어스테이도 연다.

해마다 겨울이면 고 입수학을 도왔던 롯데 선수들은 그 아름다운 마음을 이어받아 소외계층 이웃을 돕기 위한 일일 고깃집 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도 11월29일 남포직후 부산, 양산, 김해 일대의 고깃집에서 불우이웃 돕기 기금을 마련했다. 또 선수단은 롯데그룹과 연계해 '1만 포기 김장 담그기'에도 동참했다.

SK는 선수단과 프런트가 합심해 4월(12월 4~5일, 8~9일) 동안 '행복 더하기 겨울나눔 릴레이' 봉사를 펼쳤다. 이 기간 자선바자회를 열고, 인화대병원을 찾아 소아암 환아들을 위로했다. 저소득 가정을 위해 쌀과 식료품 등 물품을 나눠주기도 했다. KIA 선수들도 일일호프 등을 열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온정을 나누어주고 있다. 김명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21

SK 김광현 14일·두산 민병헌 13일 결혼

SK 김광현(26)이 14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호텔 코엑스 하모니볼룸홀에서 3세 연상의 신부 이상희(29)씨와 결혼한다. 두산 외야수 민병헌(27)은 13일 정오 서울 강남구 컨벤션 디아팡에서 동갑내기 신부 이지영(27)씨와 화촉을 밝힌다. 두산 투수 김명성(26)도 13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파티오나인에서 신부 정민지(25)씨와 백년 가약을 맺는다.